

# 어린 잎, 물 위에 흐르네

「2021 하계방학 사회복지 현장실습」  
‘160시간 동행의 기록’

실습생

김지원A · 김지원B · 이재진 · 오예은

.

사회복지사

김태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 어린 잎, 물 위에 흐르네

## # 기록한 순서

### I. 우리다, ‘작가 소개’ ..... 003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 II. 채우다, ‘실습과정 기록’ ..... 013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하나. 우리의 첫 만남 ..... 013

둘. 2주차를 마무리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무엇 ..... 027

셋.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담은 ‘노래’ ..... 041

### III. 나누다, ‘서로에게 전하는 편지’ ..... 053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 IV. 넘기다,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 087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김태권



# I. 우리다

- 작가소개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 사회복지 현장실습, 작가소개

‘나만의 일을 하는’, 김지원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요즘 성격을 소개하는 것은 긴 말보다 MBTI가 빠른 것 같습니다. 행복할 때는 ESFJ, 조금 예민한 날에는 ESTJ.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제 성격이 심리테스트에도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도 제 MBTI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제 소개를 하자면 밥을 한 끼 먹어도 밥부터 반찬, 국까지 정갈하게 내어 예쁜 식기에 담아 예쁜 쟁반에 올려 먹는 사람. 식사가 끝난 후엔 커피도 과일도 가지런히 준비해 깔끔히 먹는 사람. 밥 먹는 동안에 넷플릭스를 보기보다는 생각해야 할 일을 마저 고민하는 사람. 다 먹었다면 재빠르게 일어나 바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사람. 이것만으로도 제 소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라더니 자기소개도 밥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성격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성격이 독이 되어 제 자신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이 워낙 좋은 사람입니다. 몰입하여 일에 빠져들었을 때, 또 그

일을 잘 해냈을 때 오는 성취감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워라밸’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완성된 것도 더 손보고, 추가된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가시간은 홀로 보내기보단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북적북적 사람들과 모여있을 때 다른 것을 모두 잊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이러한 소소한 일상이 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봉사시간을 때우려 들었던 소셜벤처 ‘볼런컬처’ 고대연 대표님의 강의에서 되려 ‘봉사’에 참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획 봉사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웬지 모르게 ‘봉사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날부터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당장 사회를 눈에 띄게 변화시킬 순 없어도 사회의 분위기를,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 작은 나눔의 불씨를 키워나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는 틀을 깨고, 나눔은 쉽고 누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나눔의 트렌드를 이끌어나가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작가소개

### 관심이 많은, 즐기는, 기록하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연달아 김지원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하계방학 현장실습에는 김지원 2명이 참여하였고, 저는 김지원(B)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지만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복지관에서 6분 남짓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도, 실습생 선생님들도 팔랑팔랑 양팔을 흔들며 신나게 집으로 향하는 저를 부러워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이 집에서는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지금 저는 22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래된 물건에 쉽게 정을 붙이고, 바랜 추억들을 다시 끄집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제는 오래된 컴퓨터를 정리하며 우연히 2003년의 저를 마주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작을 수 있는지, 저렇게 오동통하고 밟그레했던 아기가 지금 술을 마시는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필름 카메라 같은 순간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름 카메라를 추억의 매개로 삼기도 합니다. 제 시선이 닿은 곳을 정지시켜 오래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사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과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니 이전에 스스로의 감정을 가두기 위해 골자를 사용한다는 짧은 시를 썼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다지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흰 여백에 검정 흔적을 남기는 것, 그리고 나의 언어가 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전달된다는 것에 매혹되어 아직도 글을 놓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는 터라 내뿜는 소리로만 그것들을 보듬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위로를 위해, 격려를 위해 앞으로 글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은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었는데 사실 저는 2011년 <도가니>가 영화화되었을 때 극장에서 친구와 이를 관람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를 초등학교이 어떻게 보았나 싶으시겠지만 상영관을 착각해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은 누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악몽을 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냥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더 성숙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윤택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첫걸음, 사회복지사로서의 김지원과 사랑하고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김지원의 뿌리일 것 같습니다. 후에 나올 뿌리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가지로 뻗어가는 이야기도 즐겁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작가소개

### ‘오예은’이라는 사람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제가 지향하는 삶을 적어보면, 해야 할 일과 한가한 시간이 적절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공 공부와 근무 이외에 할 일을 통한 만족감이 있고 한가한 시간을 통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가한 시간의 경우 햇빛 좋은 날 창가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 자전거를 타며 풍경을 보는 것, 등산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것 등 좋아하는 것을 하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소개하자면, 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 여행을 통한 발견,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의 기쁨, 클래식을 들으며 걷는 산책, 그저 누워서 창밖으로 유유히 떠가는 구름과 별 그리고 빗소리를 듣는 것이 나를 일상에서 파스함을 주는 것들입니다. 좋아하는 영화는 나의 어린 시절을 담당하고 현재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영화사 지브리의 몇몇 영화와 해리포터 영화를 좋아합니다. 비슷하게도 좋아하는 소설은 나열할 수 없으니 장르로 말하자면 셜록홈즈 같은 추리 소설, 해리포터의 판타지, 태백산맥의 시대극, 의료학 서적, 여행 서적 등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작가소개

### ‘같이 해야 하는 사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25살, 평생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사는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사람이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세한 인생이야기를 들으려면 술과 함께 이야기를 곁들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술값은 더치페이 합니다. ‘저는 취하는 것도 같이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이의 이야기에 같이 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가 되어주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같이하는 것도, 좋은 봉사를 같이하는 것도, 운동을 같이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사이에 시너지가 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이던 같이해야 재미 있습니다. 다른 이 없는 삶은 재미있을까 생각해보면 소름끼치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제가 책을 잘 읽지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책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로부터 비롯된다.’ 가장 공감되는 말 같습니다. 가정 속에서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가 끈임 없이 삶에서 순환하며 지속되는 인간의 삶속에서 다른 이의 존재는 가장 큰

이벤트 요소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때에 그 순간에 하필 나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생각만 해도 제 자신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행복에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것을 하면 그 꿈에 가장 가까운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 그래 사회복지사가 되보자’라며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결심했던 22살 말년병장의 나는 전역 후에 그 생각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사회복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 II. 채우다

- 우리의 첫 만남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첫 만남

### 좋은 시작이 주는 기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사실 저는 이번이 3번째 실습 도전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할 만큼 변화가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축소 혹은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실습만큼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또 없다고 생각하여 장장 2학기를 실습 기관을 알아만 보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휴학을 선택하여 적절한 실습 기관이 모집하는 것을 기다릴 만큼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실습 지원 기간,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고를 발견했고 주저 없이 지원했습니다. 실습생을 대하는 정중한 표현과 다양하고 세부적인 사업 소개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습생으로 합격하기 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실습생으로서 기관에서 머무르면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실습생들을 배려해 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긍정적인 기관 분위기 등은 솔직하고 무뚝뚝한 저도 자꾸만 감성적인 생각이 들게끔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경험은 더욱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인간다운’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첫인상을 중요시하는 성격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신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덕분에 자꾸만 다음이 기대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 일주일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라는 짧고도 긴 기간을 머무르 광장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할 동료 실습생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각기 다른 우리 넷이 모여 실습이라는 한배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도 앞서지만, 함께 있으면 즐겁고 많은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실습 과정에서도 저를 지지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시는 동료 실습생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경험이 처음이라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하는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했던 것은 그래도 씩씩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쑥스러운 마음에 제 마음을 다 밖으로 비춰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적응하고, 더 씩씩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데, 실습을 진행하는 이 한 달이 제게는 매우 짧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몰입하여, 멋지게 해내고 싶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출근하던 첫날, 긴장되는 마음에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앞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45분 즈음 딱 맞춰 들어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곳과 함께한다는 일이 설레기도 했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는 꽤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기관에서 동료 실습생 세 분은 꼭 이미 알던 사이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적응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친화력 좋은 우리 선생님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고 동료 실습생들과 함께하며 느낀 점은 ‘과연 나의 동료가 맞나?’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오예은 선생님, 조곤조곤 최선을 다하는 이재진 선생님, 다재다능한 김지원 선생님과 함께하며 동료 실습생이 아닌, 세 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분은 사회복지사로서가 아니더라도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은 3주간의 실습 기간 동안, 세 분께 많이 배우며 동료로서, 친구로서 더욱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첫 만남

### 안녕하세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3층 북카페의 정적을 기억합니다. 목구멍에서 가벼이 뱉어져 나오는 말이라고는 ‘안녕하세요.’뿐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꽂힌 책과 다정한 곰인형이 반겨주는 공간에서 우리는 애꿎은 가림막 귀퉁이를 매만졌습니다. 서로를 힐끔이는 검은 눈동자와 나무 바닥을 두드리는 구두의 경직된 발걸음 소리는 등줄기에 서늘한 땀으로 흘렀습니다. 100명은 족히 지원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있지, 고작 4명 뽑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뽑힐 수 있었을까 따위의 잡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름이 같은 2명과 학교가 같은 2명이 얼마나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간지럽게만 느껴지는 명찰을 목에 걸며 우리는 2021년 7월 5일 월요일,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 실습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식사는 복지관 앞 비좁은 분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왜 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용기종기 모여앉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했어요, 어디가 대외활동하기 좋더라고요’는 점차 ‘저는 계란말이를 좋아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팬스레 머쓱한 마음에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며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집까지 가는 800걸음이면 순대가 몇 줄이나 나올까 허무맹랑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낮을 가리는 성격 탓에 간단하게 밥 한 끼 했을 뿐인데도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먹을 꼭 쥐었다 폈다가 다시 쥐었다 펴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 이제 이 사람들과 한 달 내내 이 계단을 함께 밟겠구나. 아마 이 때 본격적으로 실습생이라는 것이 실감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기관, 운영지원팀, 지역조직팀, 사례관리팀, 서비스제공 1팀, 서비스제공2팀의 소개를 들으며 제가 정말 이 기관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교육을 들으며 교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던 모자란 대학생이 한 단계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개 실습생들에게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신다니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부응해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사업 소개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바쁘신 분들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은 사실 실천기록집을 작성하는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지역 특성상 복지관의 직원들이 다소 긴장감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셨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모두 열정으로 반짝거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풀에 둘러싸여 평온해 보이

는 호수 밑에서도 열심히 물살을 일으키고 있는 잉어, 언젠가는 고여 있는 호수가 흘러가도록 물길을 틈을 힘찬 태동, 제가 본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 이미지였습니다.

김태권 선생님께서는 이 물살을 선도하는 사람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면접에서 복지관 실습 면접을 본 것인지 출판사 면접을 본 것인지 혼동이 올 정도로 책과 글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역시나 우리는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왔지만 실습 과정에서 제본이나 출판을 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단편 소설을 출간하거나 희곡과 시집을 따로 제본한 경험이 있다고 한들 떨리고 설레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특히 여태껏 써보지 않은 수필을 동료들과 공동작업한다는 것은 낯설면서도 꽤나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어떤 부분에 어떤 항목을 배치하고 이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애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막막하고 긴장되지만 실습을 통해 함께 한다는 것의 행복을 다시금 깨닫고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첫 만남

### 시작, 함께하는 한 걸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고대하던 복지관에서의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을 처음 뵈었을 때 앞으로의 실습을 기대하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너무 반갑게 잘 대답해주시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해주셔서 내심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프로그램의 계획과정을 함께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의견의 합의를 이루어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의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점을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는 과정은 보통 주제가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한 회의와 달리 주제 선정부터 함께하는 과정에서 동료 실습생 선생님들께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원(A) 선생님께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점을 짚어 주시거나 결과에 대해 도출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김지원(B) 선생님께서는 참 신중한 생각을 제안해 주시고 자신이 아는 정보와 결합하여 전문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진

선생님께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 주시고 의견 정리를 잘해주시는 모습에 또래를 통해 많이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만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실습생들이 제시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며 우리가 스스로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께 배우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실습에서의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새롭게 알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주는 출·퇴근 경로에 익숙해지고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실천 현장은 어떤지를 현실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실습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들의 소개를 받고 계획을 서로 나누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지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나의 역할을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습 기간의 첫 주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이었습니다. 특히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작성 능

력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과제물을 작성할 때도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실천 현장에서 더욱 부각되는 듯했습니다. 저의 슈퍼바이저 선생님이신 신명화 선생님, 김태권 선생님께서도 복지 현장에서의 단어, 문장 작성에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셔서 더욱더 좋은 글을 작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주신 슈퍼비전들을 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자아비판이 대부분이었던 7월 첫 주,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모두 지나갔을 때 다방면으로 잘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나를 기대하며 자신을 격려해 봅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첫 만남

### 마주해서 좋은 사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첫 실습 출근길, 적당한 긴장감과 설렘의 마음으로 걸음을 나섰습니다. 실습동료와 복지관에 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길 바라는지 생각해보고 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좋을지 생각해보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실습동료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동료들은 각자 살아온 삶의 배경은 다르지만, 생각과 마음을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설고 긴장감을 주기도 하는 공간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첫 모습 그대로, 1주차의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 생각과 존중을 건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회의 속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서로 반대하는 의견이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에 놀라움과 이런 팀을 구성하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낀 한 주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조금 더 살을 채워 다듬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시너지가 나타나 같이 일할 맛 나는 동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실습생들을 부단히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신 복지관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찰 한번 없이 프로그램을 배워갈 수 있었고, 구성원 누구 하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천 현장의 가치, 사회복지사의 책무, 실무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주차에 느낀 감정과 소감은 동료와의 관계가 이런 현장의 실무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책무, 기관 내외의 이해관계, 이용자 중심의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의 과정에서 동료와 이견이 있고, 생각과 방향성이 조화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과 한 주이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것을 나누었고, 관계 형성을 하였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리두기’라는 이변이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올바른을 향해 한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보고 생각을 공유하고,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앞으로의 3주의 시간이 정무적인 차원에서든, 가치의 차원에서든 서로 성장을 이끌어 주는 시너지 넘치는 동료로서 실습이란 뜻깊은 시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우리들의 모습이 기다려지는 의미 넘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 II. 채우다

- 2주차를 마무리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무엇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 사회복지 현장실습, 2주차를 마무리하며

### 나부터 강점중심으로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벌써 절반이나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습에 더욱 깊이 빠져드는 만큼 시간도 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꼭 기-승-전-결의 구성처럼 우리의 실습도 어떤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고, 무언가 우리의 방향대로 전개하고. 아마 지금은 승의 단계 즈음에 있겠네요.

실습생들과 함께 매주 하나씩 공통 질문을 정해 이 실천기록집에 담아보기로 한 지 달랑 한 주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그 답변이 고민됩니다. 2주 차 질문은 ‘실습 중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말은?’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는 어떤 말이 인상 깊었다기보다 한 주 자체가 매우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었으며,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덕에 생각보다 빠르게 모집을 마감해보는 기쁨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는 사회복지의 근본, 가치도 배울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인상 깊었던 말들이 한 페이지는 가득 나올 수 있을 듯했습니다. 특히 ‘상황적 약자’라는 표현은 잊지 않고 제 일상에도 스미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한 명의 상황적 약자인 내가 또 한 명의 상황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게끔 말입니다. 또 중간평가회를 통해서도 동료 실습생들의 발표,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평가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중간평가회 때,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저의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일을 할 때는 괜찮지만, 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러한 저의 성격이 괜한 걱정을 만들고, 괜한 트집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이점도 존재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 실습 과정에서도 이러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동료 실습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꾸만 괜한 걱정과 많은 피드백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평가회를 통해 이 부분을 제 칭찬으로 꼽아주시는 것을 들으며 정말 감사했고, 무언가 감출 수 없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토대로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저의 장점을 단순히 일과 관련된 측면에서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나 양보도,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넘기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실습을 시작하며,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과연 어떤 실습생이 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2주차를 마치며, 제가 내린 답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실습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움의 위치에 있는 학생으로서 실습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습생으로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이 실습은 과연 혼자 잘 해내고,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료 실습생들과 혹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이 시간을 위해 스스로와 동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2주차를 마무리하며

### 나를 기쁘게 하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실습 둘째 주는 오예은 선생님의 생일로 시작해 이재진 선생님과 김지원 선생님의 생일로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에 축복할 일이 셋이나 있다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름 성공적으로 ‘초복 행사’도 마무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순식간에 모집이 마감되었다고 하니, 아, 참 웃을 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슬슬 실습 중간에 접어드니 몸도 적응을 마쳐 오전 1시에 자고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짧은 수면시간이었지만 주말에는 겨울잠을 자는 새끼 곰처럼 침대대에 찰싹 붙어있어 그리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달짝지근한 빙수 따위를 먹는 꿈을 꾸던 제가 꿈에서도 영문 모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며 저는 중간평가서 실습 태도 체크란에 ‘매우 적극적’을 체크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비교적 적극적’을 체크하셔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만큼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스스로를 임파워(Empower)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사용한 ‘오히려’라는 단어를 저는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삽니다. 사실 정확히는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즐겨 쓰곤 합니다.

다. 제가 실습생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유행시키고 있는 말인데 조금 지친 일이 생겨도 오히려 좋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는 과제가 왜 이렇게 많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좋아.’, ‘아 오늘 너무 즐린데?’, ‘오늘 집 가서 바로 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우리는 한고비 한고비를 유쾌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가파른 고비는 있었습니다.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풍족했던 ‘초복 행사’를 마치고 저는 속으로 당장 집에 뛰어가서 찬물로 씻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거의 타지 않는 제 뒤통수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더운 날씨에 구불구불 좁은 골목길의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전해드리는 일은 뿌듯함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던 것과는 별개로 고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내일까지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날 민트색 브이넥 니트를 입었는데 바깥 열기에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민트색으로 물들지는 않았을까 떠올려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는 것이 이후에 더 도움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차마 선뜻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팬스케 제 방의 오래된 연두색 선풍기가 보고 싶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차가운 커피 한 잔에 녹아내린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백나무 베개와

편백나무 방향제에서 버물리와 계피 화분까지,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름을 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할지 우리는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바로 다음날 오전 45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솔직한 심경으로 저는 모집이 시작된 다음날부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홍보지를 보내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봉사자들이 어르신들께 드리는 부채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남몰래 구상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집하려던 30명도 아니고 45명이라니, 소식을 듣자마자 실습생 선생님들과 격렬하게 하이파이브를 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마음이 과하게 들떠 저는 실습의 첫 단추를 잘 꿰 것뿐이니 자만하지 말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남은 사업들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많은 것을 배워가기를 바랐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역시.”

글로만 읽어도 음성지원이 되는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 김태권 선생님께서는 역시나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어찌면 선생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라는 책을 쓰는 작가이고, 본인은 그 책을 응원하는 독자이자 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펜은 우리의 손에 있으니 선생님께서는 묵묵히 지켜보고 즐겁게 보았노라 후기를 남겨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깊게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비유로 활용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실습생들의 주체성이 발휘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저도 당사자의 책을 대필해 주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회복지사가, 주변 사람들의 책을 읽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열띤 독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몇 년 뒤에 이 책을 읽을 때에도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며 제 초심을 기록해봅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2주차를 마무리하며

### 돌아봄, 그리고 소통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한 주간 가장 인상 깊었던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말을 선정해보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김태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삶에 열렬한 독자로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변화시켜드리는 것이 아닌 약간의 스파크를 주고 변화는 당사자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입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너무 잘 전달되어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주인공에 대한 안타까움, 대견함, 칭찬, 고민나눔을 한다고 느끼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대할 때도 비슷하리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응당 독자라면 주인공을 응원하고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감정 중 하나인데 앞으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당사자를 대할 때에 이와 같은 감정으로 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을 돌아보았을 때 이론 중심의 첫 주가 지나고 실제로 기관의 이용자분들과 만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둘째 주를 지나 보냈습니다. 벌써 2주라는 시간이 지나 중간평가를 경험한 것이 매우 신기하였습니다.

7월 12일, 폭염이 쏟아지던 제 생일에 ‘초복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일에 이용자분들을 실습생으로서 처음 뵙게 된다니 새롭고 신기한 마음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오전에 수박을 썰고 오후에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삼계탕과 수박을 전달하여야 하므로 한 분 한 분 짧은 시간만 뵙 수 있었지만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함께해 주신 김철영 팀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저를 챙겨주시고 부재중이신 어르신께 메모를 남겨드리는데 등 사소한 배려가 몸에 익숙하신 듯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초복 행사’ 이후 우연히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김철영 팀장님께서 사례관리팀에 방문한 어르신의 주소 변경이나 이후 다른 사람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 더 찾기 쉽도록 세부 사항 및 건강 상태를 전달하시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으로서 ‘매우 짧은 시간에 한 분 한 분 만나 뵙었는데 특징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고 전달하실까?’라는 생각과 함께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배운 ‘서비스를 구실로 이용자를 만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초복 행사’도 마찬가지로 ‘삼계탕과 수박을 구실로 이용자의 건강 및 주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관련 팀에 전달 후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실습 일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슈퍼바이저 신명화 선생님께서도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고 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해당 가정의 어려움이나 특이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도 합니다.’라고 슈퍼비전을 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실습 2주차를 보냈습니다. 2주차  
가 되면서 프로그램 기획의 과정을 동료 실습생들과 함께하였  
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소통의 중요성 또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실습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며 배운 것이 많  
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돌봄연대환경조성캠페인’의 경우 처음에  
각자 기획서를 작성하였고 실습 선생님들과 서로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 기획의 부족함은 물론,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청을 통해서 다른 시야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간의 기간도 경청을  
통해 실습생 모두가 발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2주차를 마무리하며

### ‘그때, 그 일에 약한 사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전광석화와 같은 한 주가 지나가고 2주차에 접어들며 정말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성장하는 기분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동료들과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환경에 맞는 자원 봉사과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디어와 힘을 모았습니다. 서로가 내는 의견과 방식이 제 각각이었지만, 결국 우린 사람의 삶을 영위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2주차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복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지역 주민 분들을 직접 만나 뵈기도 했고, 자원봉사와 돌봄 연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기획하고 잠을 아껴가며 좋은 프로그램과 결과를 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런 2주차의 실습 과정 속에서 몸과 머리가 힘들고 지치는 느낌도 들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목표와 이상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실천에는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같은 생각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에 약한 사람’ 상황적 약자란 말은 우리 실습동료들에게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습동료들도 각자의 강점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가 잘하는 점이 모여 서로의 완충 역할을 하



고 한 팀으로서 팀워크가 발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차에는 우리가 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꼈고, 코로나 상황 속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창조적인 면이 부족한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고 동료들이 좋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움을 느끼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동료들의 의견에 보완점을 보태며 더 좋은 의견으로 조율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이란 관계 속에서 제가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십만큼이나 팔로워십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사업 스터디에서 처음 듣고 소름 돋는 배움을 알게 해주었던 ‘그때, 그 일에 약한 사람’이라는 상황적 약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창조적이지 못한 저 역시도 동료들 통해 강점을 발휘하고 약점을 해결할 수 있었던 만큼, 상황적 약자 또한 사람으로 발생한 일을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호작용의 중요함과 강점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강점관점에 대해서 제 몸으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던 2주차여서 저에게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 II. 채우다

-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담은 '노래'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담은 노래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_옥상달빛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실습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매일 종례 시간에는 하루의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고, 하나의 과업을 완수할 때마다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료 실습생들이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 중 하나는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했고, 그렇다면 이번 실습을 통해 얼마나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살짝 달랐습니다.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a.k.a 근자감)이 넘치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는 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거침없었고, 스펀지마냥 배운 것을 쓱쓱 흡수해냈고, 프로그램을 통해 또 잘 뻐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잘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습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지로 해 보고 익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잘 하기보다는 경험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차분히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 노래를 동료 실습생들께 바칩니다. 그대로도 아름다우신 김지원·오예은·이재진 선생님, 비단 이번 실습이 아니라도 잘해오고 있는 본인을 조금 더 믿고, 격려해주라는 마음에서요. 물론 저에게도 바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매주 하는 말 같은데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11시 반 즈음 진지하게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 지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실행되고, 주민 가까이 전달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프로그램에 애정이 가득하지만, 특히 ‘우리 동네 담벼락’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이라서 만이 아니라 거리두기로 당사자분들을 만날 수 없는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고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의 글이 하나둘 업로드 되는 것을 보며 지역사회복지관의 존재 의의를 다시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낀 이 감정이 복지관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 복지관으로 모이는 것이겠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이용자분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실 테니 말입니다. 실천 기록집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다시 한번 패들렛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광장이 더욱 가득 차기를 바라며, 남은 한 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곡을 고르기로 약속했는데 저는 한 곡만 고르지 못했습니다. 무심한 저이기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사 로라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랑말랑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자꾸 더 뵈족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주차까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다면, 3주차는 조금 더 여유로워 선생님들과도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른 두 번째 노래는,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고맙다는 한 마디가 어려워 이렇게 노래까지 동원합니다.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中*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담은 노래

### 그중에 그대를 만나\_이선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실습의 소회를 글로 적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선선한 날씨에 시작했던 실습은 어느덧 36도에 육박하는 찜찜한 7월 말에 다다랐습니다. 그사이 코로나19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우리의 실습에 카운터가 날아왔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잘 해낸 것보다 부족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사회복지사 사무소 ‘구슬’에 들러 책과 사회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소한 프리마켓’에서 코로나에도 지역주민들의 나눔 열기를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큼니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실습이 끝나도 동료들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괜히 아쉬움이라는 핑계로 8월에도, 그 이후에도 동료들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동료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나를 허물없이 풀어지게 한다면, 동료는 굽은 나의 허리를 뺏뺏하게 곧추세워 줍니다. 그럼에도 나의 고충을 진지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발 걸음이 느린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줄 것이라 믿게 되는, 간단하게 정의하고 싶으면서도 정성 들여 설명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모든 선생님들의 성함과 저에

게 선사해 주신 좋은 추억들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나눴던 순간순간을 떠올리며 노트북의 노란 문서 파일을 클릭해봅니다.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작성했던 계획서, 형형색색의 홍보지, 매일 남겼던 사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는 사진 속에서 늘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하트, 언제나 0순위 사진 포즈인 브이가 아닌 유난히 치켜세운 엄지가 눈에 띄니다. 모아놓고 보니 오늘도 수고했다고, 최고였다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우리의 모양새와 딱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스럽게만 보였던 포즈에 괜스레 딱딱해집니다.

1층의 공사 소음, 소량의 카페인, 희망온도 22도의 에어컨 바람에도 예민해지는 제가 이렇게 보조개를 띄우며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일 것입니다. 이후 편지로 마음을 전할 실습생 김지원 선생님, 오예은 선생님, 이재진 선생님, 아침 인사를 드릴 때 향긋한 차내음과 함께 꼭 좋은 하루 보내라고 덧붙여주시던 김경집 관장님, 카리스마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늘 우리의 의견에 미소를 보여주신 배은정 과장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정하게 눈을 맞춰주시던 박선우 선생님, 우리가 싸울 틈을 수 있게끔 북카페를 봄비처럼 적셔주시던 김태권 선생님, 그리고 저의 하잘것없는 기록 하나 하나에도 꼼꼼히 응답해 주시던 손진형 선생님, 차마 열거하지 못했지만 저에게 배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선한 사람과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卍

어떻게 우리가 같은 국가에서 태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기관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라면, 다른 선생님께서 1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실습을 통해 닿은 인연이 잠시 끊어지더라도 위 노래 가사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또다시 만나기를, 모두 비슷한 마음 이기를 바라봅니다.

실습은 이제 막을 내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대 뒤에서 분주하게 할 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찻주전자 안에서 유명하던 어린잎이 찻잔으로, 사람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수료까지 무탈하게 완수한 우리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앞으로도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담은 노래

### 기억은 추억이 된다\_적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실습을 시작하고 벌써 3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김태권 선생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참 인상적이어서 저도 실습 기간을 담은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가수 '적재'의 '기억은 추억이 된다'입니다. 실습 기간을 담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가사 전체가 저에게는 실습 기간을 표현한 좋은 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부시게 빛나던 다시 오지 않을 시간도 눈물 흠치며 걸어온 기나긴 길들도'라는 가사였습니다. 김지원 선생님들, 이재진 선생님, 그리고 복지관의 모든 분이 함께 한 모든 순간을 표현한 가사로 느껴졌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나?', '더 잘해야 해.', '내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동료 실습생들과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응원과 피드백이 저를 '그래 노력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실습을 보내다 보니 실습 이전과 많이 성장한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점을 발견하고 보완점은 다른 사람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얻은 것을 습득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려 고민하기도 하였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성장하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첫 주의 불안하고 걱정하던 마음은 이제 뿌듯함과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배운 것을 기반으로 나아가 저답게 천천히 습득하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하는 데에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매 순간 본받고 싶고 배움을 준 동료 실습생 김지원(A) 선생님, 선생님께 일하는 기술이나 의사 표현의 기술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저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점도 발견했습니다. 김지원(B) 선생님, 선생님을 통해 저는 따스하고 다정한 선생님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재진 선생님, 선생님을 통해 경청하고 지지해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태권 선생님, 선생님을 통해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배려 받고 응원 받는 사람의 행복을 알게 되어 저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습니다. 신명화 선생님, 선생님을 통해 다정함과 세심함을 배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항상 밝게 맞아주시고 따스하게 바라봐주신 눈빛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은 추억이 된다.’의 가사 중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여기 그대와 나 있음에 기억은 추억이 된다.’ 복지관에서의 모든 순간이 배움이었고 그런 기억은 이후 광장종합사회복지관처럼 따스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담은 노래

### 날아\_이승열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저기서 멈춰 있지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전달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_ 이승열 ‘날아’ 中*

1년이란 시간동안 갖은 역경을 겪으며 고생한 주인공인 ‘장그래’에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직장상사인 오차장이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쪽지를 건네며 함께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제가 실습동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로 이 드라마의 장면과 대사가 떠올라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곡을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실습동료들과 저는 실습이란 시간 속에서 서로 역동적으로 얽히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거리두기’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각은 다름지언정 이로움을 추구하는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끈임 없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했던 실습동료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힘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치를 보며 노력해주었던 우리 실습동료 선생님들의 시너지와 팀워크를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장소, 시간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배움을 느끼고 밥을 먹으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나가 각자의 삶 속에 돌아간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배움의 영역에서도, 인간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사람들과 실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사업기획에서부터 홍보까지 실습동료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었던 실력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습동료 선생님들의 장점과 좋은 실력들을 보면서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잣대가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을 채워야 더 좋은 사회복지실천가가 될 수 있는지 잘 배워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김태권 선생님과 실습동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정중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이런 귀한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황홀한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실습기간 귀한인연에게 받은 에너지를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회복지사로 성장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 또 그 가치를 인연들과 함께 추구하며 함께 실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로 제 기억에 남아주신 지역주민 분들, 실습동료들, 김태권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선생님들께 고맙습니다. 글을 마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고 싶습니다.

‘실습동료 선생님들,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 Ⅲ. 나누다

- 서로에게 전하는 편지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 김지원B · 오예은 · 이재진



김지원(A) 선생님의 편지





## 이름만 같고 모두 달랐던, 동료 김지원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선생님과 함께했던 면접이 기억납니다.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새로운 이야기에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떨어져도 저 선생님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래도 함께 하게 된다면 ‘왠지 우리는 잘 맞지 않겠다’라는 불안이 덮쳤습니다. 이름이 똑같으니 ‘김지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동시에 뒤돌아야 하겠고,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저와 감성적이고 따뜻하신 김지원 선생님이 함께라면 뭔가 의견 충돌이 잦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결국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잘 맞지 않겠다는 우려는 어디 가고 저는 중요한 순간마다 고개를 돌려 선생님만 쳐다보는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저와 감성적이고 따뜻하신 김지원 선생님. 각자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고, 오히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모아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중에 제일 ‘인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저힐 향한 배려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정하고 따스한 선생님과 함께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이 주는 힘을요.

## 웃음 바이러스, 동료 오예은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오예은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는 정말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웃음 바이러스라는 제목 그대로 선생님은 실습 기간 내내 저희를 웃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북카페의 온도가 2도 즈음 더 낮았을 것 같습니다. 까르륵 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저희에게 은근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슈퍼비전 파트너였기에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유독 많았습니다. 물론 신명화 선생님도 항상 함께 계셨지만, 그래도 동료 실습생분들 중 가장 다양한 속마음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예은 선생님의 학교, 고민, 성격까지 우스갯소리로 제가 거의 김예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실습이 끝나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주고받던 티키타카가요.

선생님은 매일 다른 실습생들에게 많이 배운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항상 배웠다고, 항상 잘한다고 칭찬해주셔서 오히려 그런 선생님을 보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오예은 선생님, 밑게 들릴 수 있는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할 줄 아는 오예은 선생님. 실습 과정 내내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 영원한 반장, 동료 이재진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우선 이재진 선생님께는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동안 제 것도 챙기기 어려웠을텐데 우리 모두를 위한 반장 업무를 너무 성실히, 완벽히 잘해주셨습니다. 덜렁대는 제가 하루도 과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3할 정도 이재진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재진 선생님이 어려웠습니다. 낯을 원래 가리는 편인데다가 동성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라고 하시니 괜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실습 내내 저희 모두를 정말 편하게 해주시더군요. 드릴 질문이 없어 모두가 뿔뿔한 상황엔 나서서 질문도 해주시고, 중간중간 선생님 특유의 N행시로 유쾌한 분위기도 조성해주셨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시니 괜히 으쓱한 마음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재진 선생님을 형용할 수 있는 말은 ‘올라운더(All rounder)’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두루 갖추 수 있다니. 선생님만이 가진 그 역량이 부럽습니다.

아직 실습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 선생님이 외치던 인사 구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봅니다. ‘하나 둘(소곤), 7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슈퍼비전 잘 주는 예쁜 슈퍼바이저, 신명화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선생님이 북카페 귀퉁이 어딘가에 CCTV를 두고 저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선생님께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조리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왕 들킨 것, 더 솔직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궁금했던 점들을 마구 여쭙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거침없는 질문들이 실례가 된 것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도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에 여쭙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예은 선생님과, 신명화 선생님과의 슈퍼비전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저희 실습생들의 별 것 아닌 일상 이야기에든 편안하게, 밝게 응답해주시던 선생님의 눈웃음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그 분위기가 그리웁습니다.

제 작은 질문들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하면서도 다정한 답변들이 저를 많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새겨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제 강점과 차별점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제 약점을 딛고 한 발 더 성장하는, '무엇이든 당연하게 넘어가는 접이 없는' 사회복지사, 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beautiful’한 행복을 주신 김태권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A)

신기하게도 선생님 앞에만 서면 자꾸만 웃음이 낫던 것 같습니다. 늘 저희 실습생들을 동료로서 편하게 해주시고, 후배 사회복지사로서 정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며 ‘표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실된 감사와, 공감의 얼마나 저희에게 위로가, 행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제가 뵈는 어른 중 가장 티 없이 맑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투명한 감사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더 바른 태도를 갖춰야지, 동료들에게 더 자주 표현해야지.’ 쪽스러움을 많이 타는 터라 자신은 없었지만 선생님과 함께라면 웬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사자 중심’이라는 말은 실습 과정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이론적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회복지 실천을 넘어, 삶에까지 적용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을 통해 저희는 점진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도, 그냥 나로서도 더욱 인간다워지고 있다는 것です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김지원(B) 선생님의 편지





## 김태권 선생님에게

### 여름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평소에는 웃으며 이야기하던 내용도 글로 쓰려니 괜히 싱숭생숭하고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에필로그를 작성하실 때 이런 고민을 하실까요? 우리의 실습을 에필로그에 어떻게 그려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그러 하셨듯 역시나 햇볕 같은, 혹은 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보슬비 같은 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관의 안내자이자 저희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주시는 코디네이터가 김태권 선생님이라 너무 행복한 4주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는 모두 동료라고 해주신 덕분에 저도 선생님께 제 의견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따스한 존중에 지나 다른 실습생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변에서 감성이 과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느낀 바로 그것은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상대를 섬세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정서를 발견해나가는 것은 과하게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찰력이 좋고 선하면서도 기민하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선생님의 자세와 언행, 실무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종종 이야기 하셨 듯 선생님께서도 저희에게 무언가 배움을 얻어 가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 손진형 선생님에게

### 동행의 흔적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선생님을 슈퍼바이저로 처음 뵈었을 때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작년 5월 타 봉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뵈었던 본인 데 왜 기억하는 이미지와 영 달라 보이시는 것인지 남몰래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과 동행했던 ‘초복 행사’에서는 제가 기억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맘때 사회복지사로서 움직이는 선생님과 예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선생님, 그리고 실습생으로서의 저와 봉사자로서의 저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실습생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한 달 동안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실습생들은 실수할 수도 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해주셨지만 특히 선생님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 피드백을 남겨주신 1회기 실습 일지와 실습 계획서를 보면 선생님께 불펜이라도 한 자루 사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나름 자잘한 실수가 많았는데 모두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점에는 아직 마지막 슈퍼바이저와의 만남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손진형 선생님!

## 동료 김지원(A)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나중에 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놀랍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곁에서 동료 슈퍼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많은 배움들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요령이나 센스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선생님께서 그런 저의 약점을 보완해 주셔서 저희가 기획했던 사업들을 무사히 평가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보며 제가 괜히 욕심이 났는지 다른 동료들에게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세세한 피드백까지 드리곤 했는데 혹 불편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저 모두 낮을 가리는 편이라 우리가 4주 동안 제대로 말이나 섞을 수 있을까 불안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여러 카페를 전전하며 잔업 했던 즐거운 추억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아침을 깨우는 커피가 아니라 맥주 한 잔에 그 추억을 떠올릴 날도 오겠죠? 실습이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겠지만 가끔 여유가 그럴 때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늘 지금처럼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동료 오예은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아기 토끼처럼 폴짝 폴짝 밥을 먹으려 뛰어다니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무저 보였던 첫인상이 겹쳐져 아 참 귀여운 선생님이시구나, 앞으로 보낼 한 달에 웃음이 끊이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각거리는 작은 구두, 깔끔하게 넣어 입은 반팔 셔츠, 안경 너머 빛나는 눈동자까지 신명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화영화의 주인공 같았던 오예은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실습에서 가장 업무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바로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던 프로그램을 다뤄야 했고, 그동안 써왔던 문서 스타일과 다른 형식의 공문서를 작성하셨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첫 주차와 확연하게 달라진 마지막 주의 선생님을 뵈니 제가 다 기뻐했습니다. 제가 꼭 성장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또 어떤 형태로 반짝이실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잠재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약점에 얽매이지 말고 강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숨겨져 있는 강점들을 찾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저의 무한 피드백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동료 이재진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김지원(B)

지금도 제 앞에 계시는 이재진 선생님,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다고 적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웃고 계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유쾌하면서도 우스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께서는 딱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하지만 비웃지는 못할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고 건너건너 아는 지인들을 꺼내어보기도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혹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을지 염려가 됩니다. 실습생 동료들 중 선생님과 특히 사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습이 끝난 뒤에도 우리의 인연이 오래 유지된다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실만한 아늑한 식당을 많이 찾아두겠습니다. 슈퍼바이저와의 만남이나 중간 평가회에서 반장의 역할에 대한 고민, 창의적이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셨는데 선생님과 한 달을 지내며 느낀 점은 저라면 그렇게 반장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팔로워들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리더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반장이셨고, 능력 있는 실습생이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예은 선생님의 편지





## 신명화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선생님을 뵈게 된 것이 어제 같음에도 어느덧 종결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따스한 미소로 참 손이 많이 가는 실습생이던 저를 매번 잘 알려주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통해 이후 내가 만나는 실습생들, 후배들 그리고 모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슈퍼바 이저와의 만남 시간마다 궁금한 것을 잘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에게 늘 감사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만남의 시간 이외에도 매 실습일지 마다 친절히 알려주시고 응원해주신 것이 따스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을 청명한 햇빛과 같은 따스함을 잘 배워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다 한들 신명화 선생님은 저에게 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태권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면접의 무덤덤 날 선생님을 뵈게 된 것이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배려와 정중함은 실습 기간 내내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심 김태권 선생님을 보며 부러움에 선생님을 바라보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늘 정중하시고 강점을 찾아 응원해주는 모습과 말들 전부가 김태권 선생님의 진심이 늘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참 감사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더불어 항상 음악과 감성에 진심이시고 잘 공감해주는 모습, 감정표현이 풍부하신 모습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에 비해 무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풍부한 감성이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 해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알려주시는 것이 많아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전부 알려주시고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신 모습, 다정하고 따스한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 동료 김지원(A)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복지관의 도서관에서 어색해하시던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함께 신명화 선생님께 슈퍼비전 받던 순간들도 기억납니다. 항상 슈퍼바이저와의 만남마다 함박웃음 지을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덕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실습일지의 작성이 어려워 워서 고민하던 중 선생님이 종이에 글을 먼저 써보고 옮기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집에 가서 해보니 역시 문장이 잘 써져서 김지원 선생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하는 프로그램마다 적극적이시고 추진력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실습 기간, 피곤하실 만도 하신데 열정 있는 모습 본받고 싶었습니다. 여유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와 선생님은 여러모로 참 다르구나 싶으면서도 선생님과 달라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점도 많았습니다. 실습이 끝난 이후에도 김지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개성과 열정 있는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 어디서든 잘하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실습 기간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 동료 김지원(B)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색해서 정적인 걸 싫어하는 저의 성격 탓에 자꾸 말을 걸었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같이 떡볶이 먹자고 해주신 것도 선생님이셨습니다. 둔한 저는 나중에야 선생님께서 낮가린다는 것을 알 만큼 선생님은 상냥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습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참 친절히 잘 알려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습을 함께 하면서 김지원 선생님은 참 다재다능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지도 잘 제작하시고 특히 ‘마음이 Book적북적’을 진행할 때는 동화 제작을 하셨는데 동화의 내용을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독성이 참 좋은 동화, 귀여운 동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지원 선생님은 본인이 가진 재능을 잘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알려주시는 모습, 밝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어떤 순간이 와도 잘 해내실 거 같습니다.

## 동료 이재진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오예은

기숙사 1층에서 이재진 선생님이 먼저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하지?”라고 해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복지관에서 합격 전화만 받고 복지관 홈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서야 처음 같이 실습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야 말하지만 먼저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실습 첫날 먼저와 계신 이재진 선생님을 보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습을 함께 하면서 학교에서 본 이재진 선생님과 실습지에서의 이재진 선생님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고는 새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습지에서의 이재진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비대면으로 학교에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실습지에서 매일 보게 되니 웃는 모습도 웃긴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어 새로웠습니다. 이재진 선생님의 다른 사람을 응원, 칭찬,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이후 학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진 선생님의 편지





## 김태권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실습기관 합격 통보연락을 김태권 선생님께 처음 받았을 때, 너무나 놀란 마음 뿐이었습니다. 좀처럼 받기 어려운 기회가 저에게 허락되었다는 점에서 전화기 너머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면접 때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긴장감을 덜어주시려 노력해주시던 모습 그대로 따듯하고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실습면접에서 여러분을 인터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주셨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 사람을 파악해서 합불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란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앞전에서 겪었던 실습면접과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었습니다. 동료로서 실습기간에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 역시 실습생들을 부단히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선생님께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이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먼저 존중을 건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의 모든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 면담시간에 저와 같이 일하게 될 동료들이 부럽다고 말씀해주신 선생님, 살면서 들은 말 중 가장 자존감이 올라가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생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 손진형 슈퍼바이저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슈퍼바이저 손진형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뵙기 전, 사실은 굉장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의를 차릴지, 어떻게 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담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슈퍼바이저라 함은 왠지 권위 있고 지위 있는 대상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슈퍼바이저와의 만남’ 첫 번째 시간부터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유도해주시면서 슈퍼비전을 주셨고 사회복지실천현장 선배로서도 많은 배움과 금 같이 귀한 조언을 많이 나누어주셨습니다. 정성스레 실습일지에 매일 적어주신 정갈하신 선생님의 손 글씨도 제가 사회복지를 이어나가며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이 되고, 방향을 짚어주고 실습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역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성장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칭찬과 부담감을 덜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실습기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인사 또한 매일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향기가 풍겨지시는 좋은 선생님께서부터 좋은 기억가지고 실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을 잘 간직하고 배움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료 김지원A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선생님과 처음 밥을 먹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취향이 같아서 커피도 같이 사서 마셨던 기억이 선한데 벌써 실습기간이 끝나간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늘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농담도 잘 받아주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실력 넘치는 모습으로 팀워크에 기여해주셔서 옆에서 배운 점이 진심으로 많습니다. 같이 일할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특출한 능력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도 뚜렷하시고 본인이 가진 정서 또한 따스하시다는 것을 알고계신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그 정서를 가치에 맞추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잘 고민하시고 프로그램 속에도 녹여내는 선생님의 모습이 굉장히 탁월해 보였고 동료로서 존경스러운 면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장이었지만 통솔력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든든한 결정력과 판단력을 발휘해주셔서 감동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더 일하고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같이 했던 무엇이던 탁월하게 잘해주셔서 고맙고 부족한 저를 잘 봐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함께 사회복지현장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 동료 김지원(B)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작가님이라 부르며 농담을 했던 김지원(B) 선생님, 선생님의 성실한 면모를 보고 굉장히 부러웠고 닮고 싶었습니다. 항상 전체적인 맥락을 계획해주셨던 깔끔한 워딩과 진행력이 너무나 멋있어보였습니다. 선생님의 기획력부터 홍보까지도 실무능력과 센스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도 성공할 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저보다도 생각이 깊으셨고 어른스러운 면모도 많았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것을 고려하실 줄 아는 선생님이 대단해보였습니다. 슷기 넘치는 모습에 긴장이나 낮가림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티를 내지 않으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팀을 위해 희생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퇴근 후에도 개인시간도 많이 할애하여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은지 끊임 없이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며 여러 가지 좋은 소스를 팀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이 가히 '부러운 성실함'이었습니다. 예의와 남을 존중하시는 태도 또한 너무나 배울 점이 많았고 글쓰기도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너무 잘 쓰셔서 닮고 싶은 능력이었습니다. 예의가 바르시다 보니 대인관계도 잘해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꼭 다시 함께할 그날을 바라봅니다.

## 동료 오예은 선생님에게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 이재진

면접 일정에서 처음 뵈고 놀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동기였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소 얼굴이 익숙해 반말을 해 오던 사이에 실습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여 공적인 생활을 함께 잘하도록 노력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선생님께서 실습기간 구성원에게 주었던 활발한 에너지는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유난히 더 에너지를 주시며 같이 성장해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도 역할분담을 확연하게 맡아주신 모습도,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신 부분도 선생님의 강점이었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피곤하고 지칠 때 즈음이면 활기를 불어주시는 에너지가 선생님이 가진 모습 중에 저에게는 가장 갖고 싶은 면모인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도 긴장이나 당황하는 내색 없이 자기 생각을 술술 잘 말씀하시는 당당함도 멋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예 자아성찰과 고민이 많이 하셔서 그러한 기본기가 형성되어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이 많은 반장이었지만 불평불만 내색 없이 구성원들과 잘 따라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으로 돌아가지만 실습이란 기억이 서로의 삶의 한축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 IV. 넘기다

- 에필로그 :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태권





## 사회복지 현장실습,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 삶이 한권의 책이라면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김태권 사회복지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종종 한 권의 책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매일을 마주하는 것은 기어코 책의 한 장을 잘 넘겨내는 듯하고, 똑같은 날 하나 없는 새로운 일상의 연속은 우리들이 써내려가는 한권의 아름다운 소설책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만큼은 ‘독자’가 아닌 ‘작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라는 것을 구실로 우리가 함께 보냈던 2021년 7월 이 한 달의 시간은 저에게도 무척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一)방향적인 가르침에 기반 하는 관계보다 쌍방향적인 배움을 나누는 동료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동행해온 시간들이었지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하였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제가 바라본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공이자 작가, 그 자체였습니다. 4명의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각자의 강점들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책을 써내려가는 연필이 된 듯 마냥, 매 순간을 멋지게 기록해 나아가셨습니다. 과정을 옆에서 함께했던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모습은 큰 배움이 있었고, 역동적이었으며,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써내려온 책의 열렬한 팬(fan)이자 독자가 되어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서툰 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써내려온 지난 제 삶의 책의 일부도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스스로의 삶의 '작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주의 시간 동안 수많은 순간들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4명의 무궁무진한 강점과 가치, 소중한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뜻깊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저와 같은 여러분들 삶의 팬(fan)들이 항상 곁에 있음을 기억해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진심을 전합니다.

## 칠흙 같은 어둠속에서도 '벗 하나 있었으면'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김태권 사회복지사

도종환, '벗 하나 있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리메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흙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서로의 소중한 시간들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유한하고 정해진 시간을 나누며 가장 크게 와 닿는 가치가 바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는 말로 통칭하고는 합니다. 인연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분들이 동료로서 만나 관계 맺고 공유해온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했던 순간들로 와 닿았기를, 지금도 부디 그러

하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책명 ‘어린 잎 물위에 흐르네’, 그 소중한 이름의 기록집을 마무리하는 맺음말로 답기에는 부족한 기록일 것 같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각자 ‘삶’이라는 책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신 ‘작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우리들의 시간도, 짧은 이 기록도, 조금이나마 따뜻한 응원과 지지로 와 닿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도 함께 있습니다.

책장에 올려진 초록 초록한 잎을 건져 옆에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부드럽게 목으로 넘기듯, 실습을 마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나간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들도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담으려합니다. 뜻 깊은 시간을 함께했던 여러분들에게도 부디, 동료와 함께한 소소한(so-소중한) 가치 가득했던 시간으로 부드럽게 넘겨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 어린잎, 물 위에 흐르네

「20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하계방학 사회복지 현장실습」 실천기록

지은이 김지원(A) 김지원(B) 오예은 이재진

인 쇄 2021년 7월 28일

펴낸곳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엮은이 김태권

연락처 02-2201-1333

홈페이지 [www.gj.or.kr](http://www.gj.or.kr)

※ 광장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gj.or.kr](http://www.gj.or.kr)) 등 온라인 상 PDF 파일로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출처를 밝혀주신 후 파일을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단, 본 기록물을 다른 도서 및 자료 등에 활용 시, 사전에 반드시 본 기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